



**고창서, '아동안전지킴이' 36명 선발 전화면접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고영환)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모양지구대에서 2022년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을 위한 비대면 전화면접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복지법 제 33조에 근거하여 은퇴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임무를 목적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명 증원된 36명을 선발하였고, 총 46명이 지원하여 13대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전화 방식으로 면접 장소 방역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킴이에 대한 이해도 활동 적합성, 아동보호에 대한 열의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 전화면접 등 점수 합산하여 36명을 공정하게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고영환 고창경찰서장은 "올해 활동예정인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교육문화원, 효자4동 저소득층에 백미 15포 지원**

세계교육문화원(WECA)은 23일 효자4동주민센터(동장 박정선)를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백미 15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백미는 관내 저소득층 1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선 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따뜻한 동네 만들기에 후원을 해준 세계교육문화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빈곤한 가정과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교육문화원은 교육청 소관 NGO단체로 구조단체로 빈곤이동지원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인후3동 지사협, 희망의 꿈사다리 장학금 200만원 전달**

전주시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혜)가 새학기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층 20세대에 각각 도서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도서문화상품권은 신학기 초중고 학생들이 문제집이나 도서, 학용품 등을 구매할 때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해 전달했다.

정진혜 위원장은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1화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서문화상품권이 보탬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업에 의지가 있는 학생이 학비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행복한 인후3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석대, 교원 정년퇴임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평생을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며 후학을 길러온 교원에 대한 정년퇴임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천현 총장과 퇴임 교원, 교무위원, 하태현 교직원친목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퇴임한 교원은 윤장원(경영학과)·권양기(체육학과)·고하영(식품영양학과)·김라옥(교양대학)·유기욱(국어교육과)·김주석(광고홍보이벤트학과)·이창노(기계자동차공학과)·이혜숙(유아특수교육과)·황문숙(간호학과)·배종진(한약학과)·장혜영(아동복지학과) 교수 등 총 11명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퇴임하는 교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정부포상 등을 전달했다.

이날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장원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을, 권양기·고하영·유기욱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김라옥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김주석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이창노 교수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천현 총장은 "수십 년간 교단에 몸담아 대학 발전에 이바지 한 교수님들의 열정과 마음을 오래도록 잘 간직하겠다"며 "퇴임 후에도 우석의 산증인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수질검사**

전주시가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40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수질검사는 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활용에 이뤄지며, 어린이집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인 1조, 총 10개 조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1차로 잔류염소측정기를 이용해 수돗물 염소농도를 측정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안내한다. 또, 2차로 일반세균, 철, 망간 등 10개 세부 항목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맑은물사업본부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료 채수 방법과 기본적인 수질검사 항목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어린이집 방문 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수돗물의 생산과정 및 수돗물의 중요성과 음용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실험실에서 세부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 성적서를 각 어린이집에 알려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및 수질 이상 발생 시 개선절차 궁금증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군산대, 휴먼제이앤씨 유경민 대표에 감사패 전달**

군산대학교는 지역청년과 재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준 ㈜휴먼제이앤씨 유경민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23일 대학 본부에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감사패는 김동익 총장 직무대리가 전달했다.

군산대학교는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 군산대학교 및 지자체(군산시, 전라북도) 예산 30억을 투입하여 진로·취업 전문업체인 ㈜휴먼제이앤씨와 컨소시엄을 맺고 지난 5년간(2017. 3. ~ 2022. 2.) 지역청년 및 재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상담서비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에 따른 결과물로 지역청년 대상 진로·취업프로그램(93개, 9,089명)과 군산대학교 재학생 대상 진로·취업프로그램(29개, 34,205명)을 운영하여 지역청년의 고용을 제고하고 재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국립대학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군산대학교는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휴먼제이앤씨 유경민 대표의 헌신적인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군산=남현봉 기자



**남원소방서, 야간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22일 겨울철 야간 취약시간대에 소방차 재난 현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야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 및 캠페인에서는 소방차량 4대를 동원해 출동 장애지역과 전방시정인 공사장 및 주변도로에서 실시되었으며, 지령에 따른 긴급출동 및 홍보 안내방송 등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 또는 부근은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정지 ▲편도 2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 1차(좌) 및 3차(우)로 양보운전 ▲횡단보도 보행자는 잠시 멈춤 등이다.

백성기 남원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소방차 출동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